

# 농협 전남본부 “쌀 판매 역량 강화...양곡 1조원 시대 연다”

농협 지역본부들, 올해 경제사업 주요 업무계획 발표

전남, 사업 규모 4조4000억원...광역 브랜드 매출 270억 목표

광주, 지역 쌀 취급률 65%로 확대...직거래 장터 보조금 상향

국제 곡물 수급 불안과 식량 안보 위기 속에서 전남농협이 올해 전남 쌀 판매 역량을 강화해 ‘양곡 사업 1조원 시대’를 열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농협 광주본부는 올해 14개 지역농협의 광주 쌀 취급비율을 65%로 끌어올리고, 9만㎡(2만7000평)에 달하는 배추 계약재배를 추진할 계획을 세웠다.

이 같은 내용은 농협 지역본부들이 올해 세운 ‘경제사업 업무계획’에 담겼다.

전남농협의 올해 경제사업 규모는 4조3000억원으로, 지난해(4조1653억원)보다 3.2%(1347억원) 증가한다. 전남농협은 경제사업 활성화를 통해

전남 농산물의 경쟁력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이 가운데 양곡 사업은 첫 1조원 시대를 맞는다. 전남농협은 사업비 64억원을 들여 고품질 쌀을 생산하고 가공·유통까지 일원화하는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또 미곡종합처리장(RPC)과 기업 1곳을 일대 일 연계해 판매 역량을 높인다.

쌀 과잉 생산으로 인한 가격 폭락을 막기 위해서는 수입 밀가루를 대체할 ‘가루 쌀’ 생산에 앞장설 예정이다. 올해는 해남농협과 다시농협, 계곡농협이 ‘가루 쌀 생산단지’에 선정됐다. 이외 전남농협은 밀 등 전략 작물 직불제 설명회를 열어 ‘쌀 적정 생산 대책’ 홍보에 힘을 기울인다.

전남을 대표하는 과일 브랜드 ‘상큼에’와 아열대 작물 브랜드 ‘오매향’은 취급 품목을 늘리고 연중 출하 체계를 구축하면서 당치를 키울 작정이다. 전남 광역 브랜드 올해 취급 목표는 270억원으로, 전년(177억원)보다 52.5%(93억원) 늘었다.

전남농협은 산지부터 도매·소매 유통 과정까지 아우를 수 있는 원예 농산물 유통 중심지를 구현할 방침이다.

우선 배와 파프리카 등 4개 품목을 취급하는 거점 스마트 산지유통센터(APC)를 전남 5곳에 개설한다.

광역 물류비 절감을 위한 필수 요소인 화물 트럭(팻릿)은 지난해보다 5.5%(1771팻릿) 늘어난 3만4000팻릿을 지원한다.

무안군 삼향읍 전남농협에 구축된 ‘온라인 지역센터’를 중심으로 생방송 판매(라이브 커머스)를 올해 20차례 진행하면서 지역에서 경쟁력 있는 특색 상품을 전국 소비자들에게 알릴 예정이다. 지난해에는 모두 13차례에 걸쳐 생방송 판매를 진행했

다. 지난해 본격화한 도농(都農) 상생은 행농(行農) 상생과 동시에 추진한다. 지난해 서광주농협이 30억원을 투자한 ‘화순 농주농협 로컬푸드 직매장’을 필두로 지분참여형 사업안을 더 발굴할 계획이다. 올해 말 준공 예정인 ‘전남 농업인 회관’에는 일로농협의 로컬푸드 직매장이 입점한다.

이외 타작물 재배지원 사업비 37억원을 들이고 배추·무·양파·마늘·대파·고추·양배추 등 품목을 대상으로 ‘전남형 수급사업’을 추진해 산지 가격을 안정시킨다는 계획이다.

농촌 고령화와 인구 감소 대안으로 떠오르는 ‘스마트 팜’ 보급을 위해서는 12억5000억원 규모 예산을 들여 보급형 단독 시설(하우스) 도입을 추진하고, 5년간 청년 농업인 자립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예산 45억원을 들인다. 농업용 유류 저장 탱크(급유기) 450대 지원, 농축산물 텀프 운반 장비 243대 지원 등도 펼친다.

농협 광주본부는 지역 14개 농협이 ‘고향사랑기

부제’ 답례품 시장을 선점할 수 있도록 힘쓰기로 했다. 광주지역 자치단체들이 답례품으로 ‘빛잔들 햇쌀 6중’을 선정한 계기로 광주통합RPC 전체 매출의 30% 비중을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매출로 채운다는 계획이다.

농협 광주본부가 진행하는 ‘직거래 장터’는 보조금 88.2%(1500만원) 늘린 3200만원을 배정했다. 올해 금요 직거래장터 25회 이상, 명절 장터 4회 이상 열 방침이다.

쌀값 하락과 소비량 감소로 인한 광주통합RPC 적자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쌀 제품 비중을 70% 넘게 끌어올린다. 올해 광주통합RPC 목표 매출 140억원 가운데 100억원(71.4%)을 제품 판매로 채울 계획이다. 아울러 지역농협의 광주 쌀 취급비율을 지난해 58.3%보다 6.7%포인트 올린 65%로 상향하기로 했다. 올해 지역농협들의 광주 쌀 판매 목표는 61억8000만원으로, 전체 쌀 매출 목표(93억9700만원)의 65%를 차지한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희망2030나눔 캠페인 영광군에 성금 기탁

농협 전남본부(본부장 박종탁·오른쪽 4번째)와 농협영광군지부(지부장 조기영·맨 왼쪽)가 지난 27일 영광군청을 찾아 희망2030 나눔 캠페인 성금 3500만원을 기탁하고 있다. 이번 성금은 영광군지부와 지역농협 6곳이 각 500만 원씩 모아 마련했다.

<농협 전남본부 제공>

## 1월 농촌융복합산업인에 박석순 담쟁이 대표

지역자원 활용 체험 프로그램 등 경제 활성화·고부가가치 창출 기여

“치유 농업을 활성화하는데 기여하고 싶어요. 앞으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남도가 최근 지역 자원을 활용한 치유농업 프로그램 및 제품 개발로 고부가가치 창출에 힘쓰고 있는 박석순(사진) 담쟁이 대표를 1월의 농촌융복합산업인으로 선정했다.

여수에 있는 담쟁이는 블루베리, 오디, 사과대추, 천일홍 등을 생산하며 지역 자원을 활용해 수확 체험 등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반려식물 심기 등 꾸러미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이다.

박석순 대표는 2017년 귀농해 농업의 가치를 확대하는 교육농장과 치유농업을 위해 담쟁이를 설립했다.

사업 초기 매출액은 4000만원이었으나 2022년 3억원을 기록하는 등 가파르게 매출 성장을 이루고



있다. 담쟁이의 성공요인은 여수 반월마을의 아름다운 경관과 지역 농촌 자원을 활용한 만족도 높은 여러 치유농업 프로그램 운영, 체험 꾸러미 상품 개발·판매로 꼽힌다.

박석순 대표는 지역 경제 활성화 노력을 인정받아 2019년 농업행정 유공, 2021년 청정전남 으뜸마을 우수상, 2022년 강소농 경진대회 우수상 등을 수상하기도 했다.

강성일 전남도 농식품유통과장은 “담쟁이는 지역 농산물을 활용해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는 농촌융복합산업 기업”이라며 “지역과 상생하는 농촌융복합산업 우수사례 확산을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 aT, 농업기관 최초 푸드테크 전담부서 신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농업기관 가운데 처음으로 푸드테크(Food Tech·식품 기술) 전담부서를 신설한다고 밝혔다.

푸드테크는 식품(Food)과 기술(Technology)을 합친 말이다. 식품제조, 외식, 유통 등 식품산업에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등 4차 산업기술을 접목한 첨단 식품 기술을 뜻한다. 주요 분야로 식물성 대체육, 건강기능식품, 온라인유통플랫폼, 공정 자동화 등이 있다.

공사는 정부의 핵심 정책인 푸드테크 산업육성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이번 조직 개편을 단행한다고 설명했다.

공사는 국민 먹거리 책임기관으로서 국내 식품산업 육성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정부의 푸드테크 산업 발전안이 발표된 직후 푸드테크

전담부서 신설안을 이사회에 상정해 2023년도 정규 부서로 조직 개편을 완료했다. 신설 푸드테크육성부는 식품산업육성처 소속으로 푸드테크육성 총괄기능을 수행할 예정이다.

김준진 aT 사장은 “푸드테크는 다가올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국민의 안정적인 먹거리를 책임질 미래 생명 산업”이라며 “공사가 가진 모든 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푸드테크 산업육성에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공사는 정부의 혁신계획 이행을 위해 소규모 부서는 업무 연계성이 높은 부서와 통합하고, 중·중·중산년 유사 기능을 일원화해 수급, 유통 등 핵심 기능을 강화한다. 조직 재정비에 따른 인사발령은 다음 달 3일 발표한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 “올해 쌀 28만t 부족할 듯”

농식품부, 수급 방안 논의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쌀 공급이 수요에 비해 약 28만t 부족할 것으로 추정했다.

이에 내달 양곡수급안정위원회를 열어 수급 관리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27일 통계청의 양곡소비량조사 결과 발표에 따라 올해 쌀 수급상황을 추정할 결과를 이같이 밝혔다.

농식품부는 2022년산 쌀 생산량 376만t 중 37만t을 수매해 시장에서 격리할 예정이었다. 그러면 실제 공급은 339만t이 된다. 그러나 올해 쌀 수요량이 367만t으로 추정돼 28만t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자, 내달 시장격리곡 매입을 지속할지 등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연합뉴스

## 평동농협, 경로당 20곳서 ‘머리 염색 봉사’

광주 평동농협은 최근 농가주부모임 회원들과 지역 20개 영농회 경로당을 찾아 ‘머리 염색 봉사’를 했다고 29일 밝혔다.

김익찬 평동농협 조합장 등 임직원과 농가주부모임 회원 30명은 지역 20개 영농회 경로당을 찾아 고령 농업인을 대상으로 무료 염색 봉사를 했다.

평동농협 측은 농촌 고령화와 인구 감소가 심각

한 가운데 미용실에 가기 어려운 고령 농업인들의 안부를 확인하고 말벗을 하기 위해 이번 봉사를 기획했다고 설명했다.

김익찬 조합장은 “앞으로도 평동농협은 지역 복지 사각 지대에 있는 고령 농업인들에게 힘이 되고 나눔경영실천을 통해 지속적인 사회공헌 실천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손해보험협회**

# 의료 과소비!

일부의 무분별한 의료 행위는 모두의 부담으로 돌아옵니다

바람직한 의료이용! 실손의료보험 수호의 시작입니다!